

락룡관과 아우꺼

글 | 황티장

그림 | 우이엔 응우이엔

글 | 황티장 (Hoang Thi Trang)

그림 | 우이엔 응우이엔 (Uyen Nguyen)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베트남어 번역 | 황티장

중국어 번역 | Wenting Du, 교정: 이흠

영어 번역 | 편하련, 교정: Laura Marie Kingdon

태국어 번역 | 김주영, 감수: 분타리카 너이씨 (บุญทริกา น้อยศรี), 교정: 채혜민

목소리 | 한국어: 황창영, 베트남어: 레 쉰언 비, 중국어: 곡효여,

영어: 제인 페인터, 태국어: 페와 떼차마하몽콘





옛날 옛날에 락비엣 지역에
락롱판이라는 영웅이 살았습니다.
락롱판의 외할아버지는 용의 왕이어서
그 피를 이어받은 락롱판은 용맹했고
물위를 마치 땅 위처럼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락비엣은 황량한 지역이었는데
사람을 해치는 요괴가 많았습니다.
락룡판은 힘이 넘치는 영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요괴를
잡으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바다로 간 락룡판은 커다란 물고기 모습을 한 괴물 응으편을 봤습니다. 응으편의 몸집은 아주 커서 꼬리만 해도 큰 배의 돛만큼 컸습니다. 응으편이 움직이면 아주 높은 파도가 일어나 바다에 있는 배들은 다 침몰하고, 사람들은 한 입에 응으편의 배 속으로 삼켜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락룡판은 무서워하지 않고
응으띠와 싸우러 나섰습니다. 락룡판은
큰 검으로 응으띠의 몸을 베었는데,
응으띠가 죽은 후 그 꼬리는 높은 산이
되었습니다.



락룡판은 응으뎨을 물리치고 나서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는 아홉 개의 꼬리가 있는 천 년 묵은 여우 호뎨이 있었는데 사람을 납치해 동굴에 가두는 요괴였습니다. 락룡판은 3일 동안 쉬지 않고 호뎨과 싸웠습니다. 마침내 호뎨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굴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사람들은 산에서 사람을 납치해
잡아먹는 목편이라는 요괴가 하나 더
있다고 락룡판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락룡판은 목편을 찾아 싸우려고
바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락룡판은
꽂과 찌앵이라는 악기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목편과 싸웠고 마침내 그를
물리쳤습니다.



락룡판 덕분에 흉악한 요괴 셋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 후 락비엣 사람들은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락룡판은 사람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락비엣 지역에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우꺼라는 선녀도 있었습니다. 아우꺼는 하늘에서 내려온 착한 선녀로, 뛰어난 의술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락룡판은 요괴를 잡으러 가는 길에
아우꺼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은
결혼해서 100명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락룡판은 원래 물속에 사는 용의
후손이기 때문에 땅 위에서는 오래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락룡판은
아우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이고 당신은 선녀라 사는 곳이 다르니 내내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50명의 아이를 데리고 바다로 가고, 당신은 50명의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갑시다. 각각 지역을 다스리다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에게 알립시다.”



그래서 50명의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바다를 다스리고, 나머지 50명의 자녀는 어머니와 함께 평야와 산 지역을 다스리면서 살았습니다. 락롱짤과 아우꺼의 100명의 자녀들은 백비엣족 즉 베트남 사람의 조상입니다.



아우꺼의 큰 아들은 흥브엉으로,
반랑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왕이
되었습니다. 반랑 왕국은 베트남 최초의
국가입니다. 반랑 왕국은 기원전
696년부터 기원전 258년까지 존재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들이 용의 자녀, 선녀의 손자라고 하며, 용의 용감하고 용맹한 면과 선녀의 선하고 온화한 면을 물려받았다고 믿습니다.

“락룡판과 아우꺼”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